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223)(12/10/2022)

제 4 권 성찬에 관한 경건한 권면

제 3 장 성찬에 자주 참여하는 것이 유익함, 1-2 절

창 2:18 -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요 4:23-24 -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약 4:6 -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 17:3 -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히 5:14 -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 <제자>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그 선하심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거룩한 잔치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기뻐하며 부요하게 되기 위하여, 주께로 나아옵니다. 보십시오. 내가 원하거나 원하여야 마땅한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자 대속이시고, 나의 소망이자 힘이시며, 나의 존귀와 영광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이 날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높이 들었사오니, 이 종의 영혼에 기쁨을 주소서. 지금 나는 경건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 내 집에 모셔서, 삭개오처럼 주님의 축복을 받고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의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영혼은 주님의 몸을 열망하고, 나의 마음은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2. 주님 자신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위로도 소용없고, 주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으며, 주님이 찾아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자주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여, 내 영혼이 치유를 받아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 기진하여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서는 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 . .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마 15:32). 주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성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남겨 두셨사오니, 옛적에 사천 명을 먹이시던 그 때처럼, 지금 내게도 하늘의 양식을 주어 먹게 하여 주소서. 주님은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양식이시고, 주님을 합당하게 먹는 자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와 상속받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범죄하며, 너무나 빨리 냉랭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자주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의 거룩하신 몸을 받음으로써, 새로워지고 정결해지며 뜨거워지는 것이 내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룩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해설: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과 공동체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아담은 하와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창 2:18 -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 바울은 롬 16 장에서 자신을 도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다. 롬 16:3-4, 7 - 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7.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하나님은 목숨까지 바쳐 바울을 도운 사람들, 바울과 함께 갇히기까지 할 만큼 신실한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 주심으로 그가 힘을 내어 중단 없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의 도움과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역시 그 사람들과 그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모양으로 도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주께서 보내신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다. 예배드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믿는 백성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한다. 그러한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올 수 있다. 누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다. 그러나 주를 향한 참된 믿음과 경외심과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며 드리는 예배는 오직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드림은 은혜이다. 예수님은 요 4 장에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때는 그리스도(메시아)가 임한 바로 그 때라고 말씀하셨다.

요 4:23-24 -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참된 예배는 주님에 의해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드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작은 예배자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 정결하고 더욱 신실하고 더욱 경건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고난의 은혜를 주신다. 고난도 은혜인가? 그렇다. 그 이유는 고난에 담아 주신 거룩한 목적 때문이다. 고난의 목적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목상하자면, 첫째,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한다. 겸손과 낮아짐은 은혜와 복의 통로이다. **약 4:6 -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 11:2 -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 29:23 -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함으로 잘못되고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유지하게 하심으로 은혜의 삶을 이어가게 하신다.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순전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는 사람, 진실되게 믿고 겸손히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라도 겸손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의 길이 되는 것이다.

둘째, 고난은 훈련과 성숙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롬 5:3 -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약 1:3 -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성도의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잠 17:3 -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히 5:14 -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 12:11 -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과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 예배하는 은혜, 고난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날이 성숙하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들에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3. 창립 50 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